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 현 미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

장 석 진**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본 연구는 가족지지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두 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 인천지역 청소년 96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족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가족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매개 변인인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에 따라 진로태도가 성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이 서로 지지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로태도성숙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상담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 본 논문은 상명대학교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임.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장석진 /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 (110-743)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2길 20 / Tel: 02-2287-5497 / E-mail: schang@sm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이후의 성인기 삶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제가 있는 과도기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신의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된다. 통계청(2012)이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5~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 1위는 공부(38.6%), 2위 직업(22.9%), 3위 외모(16.4%), 4위 가정환경(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02년도에 조사된 청소년의 고민은 공부, 외모, 가정환경 순이었으며, 직업은 5위로 6.9%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해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로발달을 통해 성숙하고 만족스러운 직업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크지 않고 진로선택 능력도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와 청소년 기관에서는 청소년의 발달과 요구에 맞추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적절한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를 제공해야 한다(박은경, 백지숙, 2012; 유임숙, 2012; 이은정, 2008). 진로발달 이론가 Super(1957)는 진로발달에 있어 진로성숙의 태도적 측면이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른 진로태도를 신장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이란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

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태도가 발달한 정도를 말한다(Crites, 1971).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의 상당수가 진로발달에 진로태도가 하는 역할을 규명하고 있다(곽현, 이은경, 2011; 김철수, 2002; 김현진, 2003; 신혜영, 2003; 안윤정, 2010; 이기학, 한중철, 1997; 이상희, 2005; 이상희, 2012; 이은정, 2008; 이은혜, 2003; 이현진, 2009; 조미영, 2007; 한수현, 2003). 이들은 공통적으로 진로태도성숙을 진로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변인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이 가족의 역할이다.

가족은 인간이 만나는 사회의 최소 단위가 자 ‘나’ 아닌 타인을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장으로,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이 제공하는 기능의 하나인 가족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가족이 제공하는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박지원, 1985). 즉,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과 돌봄,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을 제공, 교환하는 기능모두를 포함한다(서영숙, 박명희, 김창숙, 서희숙, 노현신, 1998; 정지영, 임정하, 2011).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 지원은 개인의 정서적 위기와 환경적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해주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수현, 2003; Heller, Swindle, Dusenbury, 1986).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아동기와 더불어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로, 가족의 지지를 통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윤주, 2009). 심리적·사회적 적응 이외에도,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의 상호작용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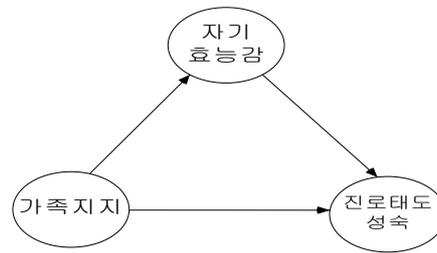
힘은 삶의 방식과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해주며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 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의 언어사용, 행동, 신념, 태도, 문제 해결 방식, 위계, 규칙, 직업 등이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 자기효능감 등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요소들이 발달하여 진로에 대한 개념 및 진로성숙의 기초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Lent(2005)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 능력요인과 환경요인들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지지가 진로발달의 중요한 자원이 됨을 강조하였고, Young, Valach, Dillabough, Dover와 Marthes(1994)는 부모가 진로 관련 행동과 목표 지향적 행동을 모델링 해주고 진로관련 학습 경험을 활발히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목표에 도달하도록 격려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관해 강조하였다(김수리, 2005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인 가족중심주의 문화 구조로 인하여 부모-자녀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나이에 이루어지고, 자녀의 진로계획과 진로결정에 부모 및 가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곽현, 이은경, 2011; 김수리, 이재창, 2007; 박수길, 이영희, 2002), 그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현림과 남혜경(1999)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이 진로선택 시 부모(41.9%)를 의논상대로 꼽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사(3.6%)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가족으로부터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돕는 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진로발달에 관하여는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가 대부분으로(송현심, 2010; 이현진, 2009; 최은희, 2007; 한수현, 2003), 가족에 초점을 두고 가족지지를 중심으로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가족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발달 측면에서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밝혀진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조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내적 요인의 하나로 자기효능감이 강조되어왔다(김현진, 2003; 이은경, 2001; 이은혜, 2003; 조미영, 2007).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Bandura, 1977b)으로 정의된다. 즉,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일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의 형성은 성취 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Bandura, 1977b).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경험하며, 이때 이루어지는 피드백에 영향을 받아 자기효능감의 기초가 마련된다(이남영, 1995 재인용; Sanna, 1992). 이렇듯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문혁준, 1999), 자기효능감의 높고 낮음은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에서 발달한 자기

효능감은 진로발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선행연구자들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진로준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차정은, 1997; 조명실, 2006; 지이레, 2010).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가족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하는 한편, 청소년의 진로태도가 성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그렇게 발달된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련성을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진로상담 개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진로발달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장면에서 가족을 포함시켜 보다 효과적인 가족지지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가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지지

가족지지만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규범적으로 인정하는 사랑과 돌봄, 정보, 물질 등을 제공,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영숙 등, 1998). 가족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일생을 통해 위기에 적응하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체로서 중요성을 갖는다(Hamburg, 1967). 인간은 이러한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 발달해 나가게 되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직업이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형제는 부모나 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Furman & Buhrmest, 1985). 또한, 형제간의 권위적, 방어적, 경쟁적, 또는 우호적 관계의 특질은 가정 밖에서의 여러 대인관계의 기초를 이루게 한다(김명숙, 1995). 이처럼 가족은 사회적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일차집단의 가장 좋은 표본이고, 상호 책임감, 돌봄과 관심, 밀접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지지, 애정, 안전을 공급하는 특성을 갖는다(Dean & Lin, 1977).

인간의 발달에 가족지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가 개인화되고 가치관이 변화하며,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다양화됨에 따라 점차 가족 간에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지지 등의 상호제공이 부족해져 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충분한 가족의 지지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적절한 자기이해, 자기 판단, 자기평가가 가능해지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지이레, 2010), 자신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게 하는 진로태도가 성숙해지며(우영진, 2011), 진로탐색과 결정도 촉진할 수 있게 된다(이재희, 이지민, 2012).

2. 진로태도성숙

진로 발달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발달적 측면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다른 신체 및 정신발달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 또한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점차 성숙해 간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김희진, 2001; 류진열, 2010; 문선아, 2001; 안범진, 2012; 이재창, 1986).

Super(1955)는 진로성숙이란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를 뜻하는 개념으로 즉,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uper(1974)는 직업성숙 또는 진로성숙은 진로교육이나 직업지도에 핵심이며 진로성숙 수준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진로교육이나 직업지도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직업세계에 참여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감정, 주관적 반응, 기질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 측면인 진로태도성숙은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하는 태도가 발달한 정도를 의미한다(Crites, 1971; Crites, 1978; Rojewski, 1994). 이처럼 정서적인 면인 진로태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흥미와는 구별되는 진로에 대한 반응경향으로(Crites, 1971), 진로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자들은 Crites(1971)가 구분한 개념 중 인지적인 측면은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정의적인 면에 해당되는 진로태도성숙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성숙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한 개념으로 보았다(이기학, 1997).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Bandura, 1977b), 행동의 방향을 이끌게 되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기도 한다(Eden & Aviram, 1993).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수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자기효능감 때문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좋은 수행을 보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밝혀졌다(김문성, 박성철, 2010; 김철수, 2002; 차정은, 1997; Latham & Locke, 1991).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

적 요구에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고된다. 이들은 도전이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주의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어려움이 닦혔을 때에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하고자 하는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뿐 아니라 노력의 양, 지속의 정도, 인내, 사고패턴, 각성, 궁극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Bandura, 1977a).

종합하여 보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으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을 예측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에 가족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이 정서적으로 유대가 깊고 민주적 분위기인 경우(박영숙, 2008),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개방적으로 대화하는 경우(이상길, 2002)와 같이,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수록 진로태도가 성숙한다고 주장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박민경, 2007; 박수현, 2009; 조화경, 2007). 한편, 가족지지를 중심으로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정운정(2009)은 가족의 지지가 진로정체감 및 진로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권용미(2003), 최은희(2007)는 가족의 지지가 교사지거나 친구지보다 진로태도성숙과 높은 상관과 설명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박은희(2009), 우영진

(2011)은 가족의 지지 중에서도 부모지지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

2)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

Bowlby(1969)가 지지적인 타인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고무시킨다고 주장한 이래(신혜정, 2005 재인용), 선행연구자들은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 국내에서는 부와 모의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허행식, 2005),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받는 물질적, 정보적지지가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김수리, 2005; 송현심, 2010; 이득연, 2004; 조명실, 2006; 최연실, 엄영순, 2009)가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만족하는 긍정적 태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긍정적 상호작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가족의 지지를 강화시킴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

Hackett와 Betz(1981)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처음으로 진로에 적용시켰으며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진로성취에 인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김명숙, 2008 재인용). 그 이후 국내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진로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제시되었다(이은경, 2001; 임경희, 2004; 조아미, 1999). 이들에 따르면, 진로탐색 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자기효능감으로부터 가지게 되는데,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들은 진로탐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를 추구하려는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들은 진로선택과 진로탐색 행동을 할 때 봉착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숙한 태도로 임하게 된다(임경희, 2004). 종합하면,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과 진로성숙을 가장 잘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이며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수리, 2005; 이은경, 2001; 이정화, 2012).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중학생 대상의 연구(이은정, 2008),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최은희, 2007)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또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볼 때(김수리, 이재창, 2007; 최은희, 2007 재인용; Taylor, Betz, 1983), 진로발달과 성숙을 촉진하

는데 매우 유용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서울 및 인천에 소재한 중학교 3개교와 인문계 1개교, 전문계 2개교 남녀 1, 2, 3학년 학생 총 969명을 연구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3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31명의 자료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분포는 중학생이 472명(51%), 고등학생 459명(49%)이었고, 성별로는 남자 184명(20%), 여자 747명(80%)이었다.

2. 측정 도구

1) 가족지지 척도

가족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의 25문항을 부분 수정한 윤혜정(1993), 김승미(1998)의 24문항 척도를 본 연구자가 '부모'를 '가족'으로 수정하고 모든 문항에 '나의 가족'을 추가하여

〈표 1〉 연구대상

구 분	남자(명(%))	여자(명(%))	합계(명(%))	
중학교	98(20.8)	374(79.2)	472(100)	
고등학교	인문계	34(17.3)	163(82.7)	197(100)
	전문계	52(19.8)	210(80.2)	262(100)
	소 계	86(18.7)	373(81.3)	459(100)
합 계	184(19.8)	747(80.2)	931(100)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지지, 직업의 기회를 알려주거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지지, 일을 대신해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질적지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가적지지로 구성되었다. 가족이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항상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결코 그렇지 않다'(1점)의 Likert(5점) 평정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김승미(1998)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93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였다.

2) 진로태도성숙 척도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rites와 Savickas(1996)의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기초로 하여, 이기학과 한종철(1998)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47문항 척도를 이상길(2002)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확신성, 준비성, 결정성, 독립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확신성은 진로선택 문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며,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도,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 방향에 대한 확고함과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얼마나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 중 중학생에 맞지 않는 17, 23번 문항을 제외한 2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식 평정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길(2002)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이었다.

3)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은(1997)이 개발하고 손수진(2006)이 사용한 7점 Likert 척도를 본 연구자가 '매우 그렇다'(6점), '그렇다'(5점), '그런 편이다'(4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6점 Likert식 평정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에 해당되는 자신감, 일을 수행할 때 자기조절,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기대에 해당되는 자기조절효능감, 어떤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과제난이도 선호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손수진(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WIN 15.0을 사용하여 단순 빈도 분석,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7.0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하여 간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및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연구모형의 측정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왜도 값은 2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값은 4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Malik, & Lee, 2003). 각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하위변인별로 유사한 평균값을 나타낸 반면($M=3.63 \sim M=3.77$), 진로태도성숙은 결정성($M=4.18$)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확신성($M=3.49$)은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기조절효능감($M=3.93$), 자신감($M=3.48$), 과제난이도선호($M=3.29$) 순인 것으로 나타나, 과제난이도선호가 전체변인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이현희(2008), 최은희(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r=.38, p<.01$),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r=.47, p<.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가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r=.28, p<.01$)을 나타냈으나,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은 자신감이나 과제난이도선호 요인에 비해 가족지지의 모든 하위변인($r=.38 \sim .40, p<.01$), 진로태도성숙의 모든 하위변인($r=.20 \sim .45, p<.01$)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2. 가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가 통제되고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며 통계적 평가의 장점을 지닌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방법으로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3). 구조모형의 계산 방법은 모집단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룰 때 사용하는 추정방법인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TLI, CFI 값이 .90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RMSEA값도 .65로 적절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2) 구조모형 검증

가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하고 가족지지에서

〈표 2〉 가족지지, 진로태도실속,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정서적 지지	1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리적 지지	자신감 지지	자기조절 효과	과제 난이도선호	확신성	준비성	결정성	독립성	가족지지	자기 효능감	진로태도 성숙도
1	1													
2	.87 ^(**)	1												
3	.83 ^(**)	.83 ^(**)	1											
4	.73 ^(**)	.75 ^(**)	.75 ^(**)	1										
5	.18 ^(**)	.19 ^(**)	.18 ^(**)	.17 ^(**)	1									
6	.38 ^(**)	.40 ^(**)	.38 ^(**)	.38 ^(**)	.25 ^(**)	1								
7	.15 ^(**)	.18 ^(**)	.16 ^(**)	.14 ^(**)	.30 ^(**)	.46 ^(**)	1							
8	.21 ^(**)	.23 ^(**)	.23 ^(**)	.21 ^(**)	.28 ^(**)	.45 ^(**)	.31 ^(**)	1						
9	.19 ^(**)	.23 ^(**)	.21 ^(**)	.24 ^(**)	.09 ^(**)	.38 ^(**)	.28 ^(**)	.56 ^(**)	1					
10	.11 ^(**)	.14 ^(**)	.11 ^(**)	.14 ^(**)	.17 ^(**)	.20 ^(**)	.18 ^(**)	.41 ^(**)	.45 ^(**)	1				
11	.26 ^(**)	.29 ^(**)	.28 ^(**)	.30 ^(**)	.12 ^(**)	.43 ^(**)	.23 ^(**)	.52 ^(**)	.68 ^(**)	.42 ^(**)	1			
12	.94 ^(**)	.94 ^(**)	.92 ^(**)	.86 ^(**)	.28 ^(**)	.42 ^(**)	.17 ^(**)	.24 ^(**)	.24 ^(**)	.13 ^(**)	.30 ^(**)	1		
13	.35 ^(**)	.37 ^(**)	.35 ^(**)	.34 ^(**)	.67 ^(**)	.83 ^(**)	.71 ^(**)	.48 ^(**)	.33 ^(**)	.25 ^(**)	.37 ^(**)	.38 ^(**)	1	
14	.24 ^(**)	.28 ^(**)	.26 ^(**)	.27 ^(**)	.23 ^(**)	.47 ^(**)	.32 ^(**)	.86 ^(**)	.83 ^(**)	.67 ^(**)	.77 ^(**)	.28 ^(**)	.47 ^(**)	1
M	3.63	3.69	3.65	3.77	3.48	3.93	3.29	3.49	4.12	4.18	4.06	3.68	3.66	3.89
SD	.89	.86	.85	.84	.91	.69	.93	.79	.68	.82	.64	.80	.61	.59
왜도	-.40	-.44	-.34	-.47	.15	.06	.24	-.09	-.64	-1.09	-.52	-.39	-.42	-.18
첨도	-.36	-.12	-.26	-.19	-.03	1.17	.43	-.52	.32	.92	.33	-.28	1.14	-.60

** p<.01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200.327***	41	.972	.962	.065

*** p<.001

〈표 4〉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	200.327***	41	.972	.962	.065
대안모형(완전매개)	201.829***	42	.972	.963	.064
차이	1.502	1	0	1	-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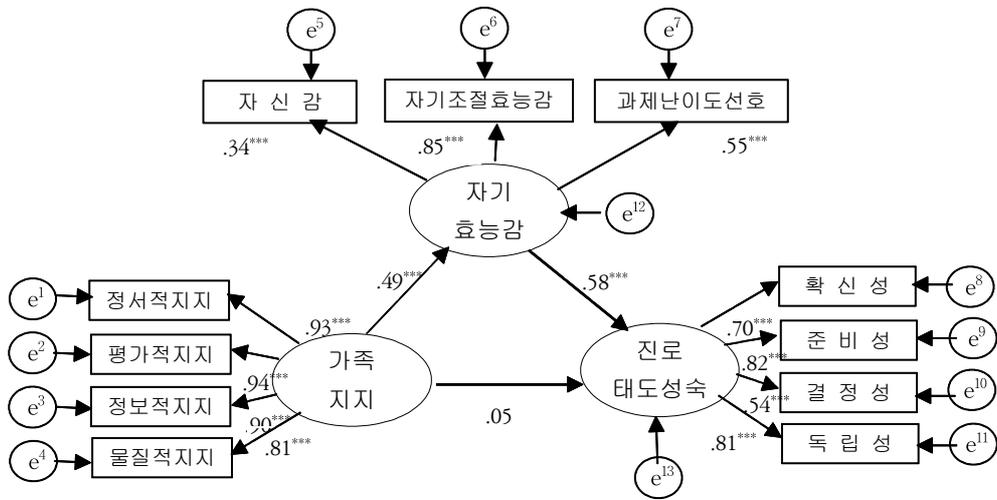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한 완전매개모형(대안모형)도 검증하여 두 모형의 χ^2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모형 중 적절한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두 모형의 적합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 모형은 완전매개모형보다 직접효과 경로계수가 하나 더 많으므로 자유도(DF) 1이 더 적다. 즉, 완전매개모형은 부분매개모형 안에 포함(nested)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χ^2 값의 차이가 3.84보다 크면 연구모형이 우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데 χ^2 값의 차이($\Delta\chi^2 = 1.50$)가 3.84보다 적고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수락하여,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선정하였다.

또한,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 그림 2와 대안모형인 완전매개 모형 그림 3의 가족지지→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진로태도성숙의 경로계수는

표 5, 표 6과 같이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부분매개 모형의 가족지지→진로태도성숙 경로계수는 표 5와 같이 .05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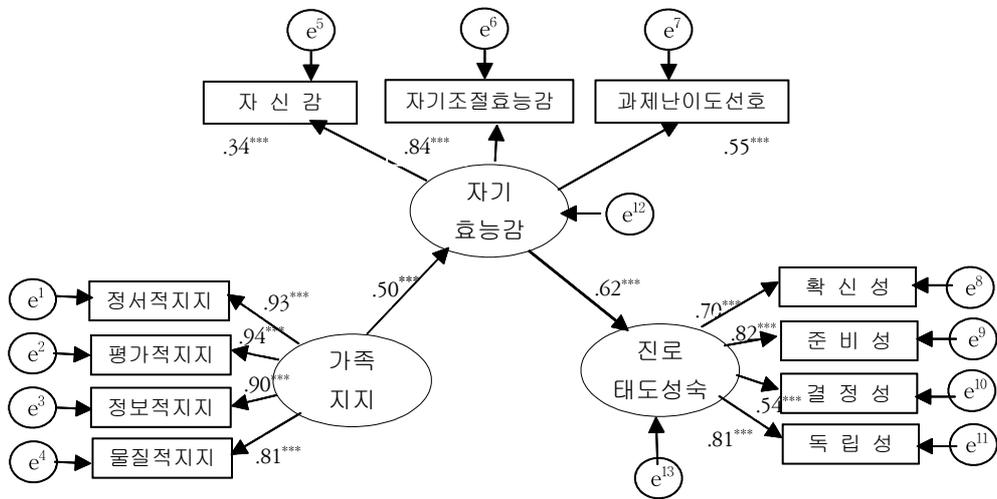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비표준화 계수를 사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산출하였다. 매개모형에서 독립변수→종속변수로 가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립변수→종속변수로 직접 가는 경로의 효과인 직접효과이고, 또 하나는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로 가는 간접효과



*** p<.001

[그림 2] 부분 매개 모형



*** p<.001

[그림 3] 완전 매개 모형

과이다. 간접효과는 곧 매개효과이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은 전체효과이다.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지지→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489)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기효능감→진로태도성숙의 직접효과

(.582)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가족지지→진로태도성숙의 직접효과(.051)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접효과(매개효과)를 나타내므로 자기효능감이 가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을 완전매개 한다고

〈표 5〉 부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가족지지→자기효능감	.185	.489	.024	7.742	***
자기효능감→진로태도성숙	1.032	.582	.136	7.563	***
가족지지→진로태도성숙	.034	.051	.028	1.204	.229

*** p<.001

〈표 6〉 완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가족지지→진로태도성숙					
가족지지→자기효능감	.191	.499	.024	8.012	***
자기효능감→진로태도성숙	1.086	.618	.132	8.255	***

*** p<.001

〈표 7〉 측정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가족지지	→ 자기효능감	.489	***	.489
자기효능감	→ 진로태도성숙	.582	***	.582
가족지지	→ 진로태도성숙	.051	.285	.336

*** p<.001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체계, 가족의 기능, 가족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가족의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된 바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변인인 가족지지와 개인내적 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진로상담 개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가정하고 가족지지와 진

로태도성숙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와 직접, 간접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지지, 진로태도성숙,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 부모지지와 진로성숙 및 진로태도성숙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김순주(2010), 이현진(2009), 장동주(2010), 최은희(200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며, 사회적지지(이득연, 2004)와 부모지지(김수리, 2005)가 진로결정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자들은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된 수행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이광자, 김순옥, 2005; 최연실, 엄영순, 2009 재인용).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진로태도성숙도가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가족이 사랑과 관심을 갖고 신뢰를 보이며 대화를 통해 적절한 평가와 정보를 제공할 때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며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 간에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낸 결과는 노경희(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지를 제공받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판단하며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 전체 역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손수진(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김명숙(2008), 김수리(2005), 김절수(2002), 이은정(2008), 이은혜(2003), 조명실(2006), 조미영(2007), 최은희(2007)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진로를 확신 있게 준비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데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성취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와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완전매개 모형이 부분매개 모형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어, 가정환경 변인인 가족지지가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개인 내적 변인인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선정한 모형이 타당한 모형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지지와 진로태도성숙 간에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며, 가족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했을 때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 발달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수리(2005), 송현심(2010), 조명실(2006)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가족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지가 청소년들의 높은 자기효능감 발달에 기여하며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을 돕는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자들은 부모 또는 가족이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성공에 대해 칭찬하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면 청소년들은 높은 성취동기를 보이는 반면, 실패에 대해 처벌하고 성공을 인정하는 데 인색한 부모를 둔 청소년은 과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낮은 성취동기를 보인다고 밝혔다(이명순, 변미희, 2007 재인용; Burhans & Dweck, 1995). 이처럼 가족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할 경우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신념과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며, 이것이 바탕이 된 자신감과, 긍정적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만족 등이 자기효능감을 높여 진로태도성숙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향후 자신의 직업적 방향을 위한 준비 및 결정을 주체적이고 성숙하게 이루는 데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청소년 진로태도성숙을 촉진하고, 진로결정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상담자가 진로상담 장면에서 부모를 포함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용하다. 즉, 부모에게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과 성숙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되, 가정에서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인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지지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년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확신을 느끼고, 자기조절과 관련한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더 나아가 어려운 과제나 역경에도 도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서울시와 인천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가족지지 측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측정변인들에 대한 자료를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갖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족지지 척도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가정환경적 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만을 고려하여 진로태도성숙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다양한 가정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한다면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지지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이 서로 지지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로태도성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으므로, 효과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발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가족적 개입 방안과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곽 현, 이은경 (2011).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진로 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자기제시 동기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03-116.
- 권용미 (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지지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8). 중등학생의 가족체계 지각,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간의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문성, 박성철 (2010).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과 산출물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2(2), 5-34.
- 김수리 (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순주 (2010). 부모가 지각한 부모지지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지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재생의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미 (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차정은 (1997).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철수 (2002).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 진로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03).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 노경희 (1998). 남자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가족지지, 자기효능감,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진열 (2010). 빈곤층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선아 (2001).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 박민경 (2007). 위기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상태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길, 이영희 (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변인과 개인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1), 141-160.
- 박수현 (2009).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아분화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 (2008).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희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심리적 독립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백지숙 (2012). 현실치료를 적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0(3), 67-76.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숙, 박명희, 김창숙, 서희숙, 노현신 (199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2(2), 67-88.
- 손수진 (2006). 가정환경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심 (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영 (2003).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 (2005).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 중, 고)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범진 (2012). 초등영재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윤정 (2010). 고등학생의 부모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영진 (2011). 부모지지와 청소년의 진로포부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임숙 (2012).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이기학, 한종철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0(1), 167-189.
- 이남영 (1995). 과업수행에 있어서 자기효능감 형성과정과 향상전략. 교육연구, 1(14), 397-412.
- 이득연 (2004).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관계: 진로결정수준별 공변량 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순, 변미희 (2007). 청소년에 대한 가족지지와 욕구충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2(1), 61-81.
- 이상길 (2002). 어머니와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만족도가 여고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일반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

- 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 연구*, 13(3), 1461-1479.
- 이윤주 (2009). 가족지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친밀감이 중고등학생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1(3), 57-71.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 (2008). 개인, 가족, 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2003).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가정의 가치지향성 및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1986).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2, 67-90.
- 이재희, 이지민 (201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77-87.
- 이정화 (2012).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비교.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남혜경 (1999).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요인분석.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53-82.
- 이현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 (2008). 전문계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 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경희 (2004). 진로인식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동주 (2010). 부모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운정 (2009). 대학생의 가족지지, 진로정체감, 진로신념과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영, 임정하 (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1), 37-51.
- 조미영 (2007).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외통제성 및 불안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실 (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아미 (1999). 사회교육 담당자의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조직 특성의 차이. *인문과학연구논총*, 19, 353-364.
- 조화경 (2007).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기능과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이레 (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 (2007).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실, 엄영순 (2009).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적

- 응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97-224.
- 통계청 (2012). 2012 청소년 통계. <http://www.kostat.go.kr>.
-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행식 (2005).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Bandura, A. (1977a). *Social-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T: Printee-Hall.
- Bandura, A. (1977b).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urhans, K. K., & Dweck, C. S. (1995). Helpless in early childhood: The role of contingent worth. *Child Development*, 67, 606-620.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Crites, J. O. (1971). *The maturity of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Washington, DC: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 Crites, J. O. (1978). *Manual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s*. mon-terey. CA: CBT/ McGraw-Hill.
- Dean, A., & Lin, N. (1977).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Problems and prospects for sysyematic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65(6), 403-413.
- Eden, D., &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2-92.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i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inzberg, E., Ginburg, S. W., Axelrad, S., & Herman, J. R.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ller, K., Swindle, R. W., & Dusenbury, L. (1986). Component social support process: Commentsand intergr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66-470.
- Latham, G. P., & Locke, E. A. (1991). Self 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212- 247.
- Lent, R. W. (2005). A social cognitive view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NJ: Wiley.
- Hamburg, D. A. (1967). A perspective on coping behavior. *Archives General Psychiatry*, 17, 277- 284.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Rojewski, J. W. (1994). Predicting career maturity attitudes in rural economically disadvantaged yout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1*(1), 49-61.
- Sanna, L. J. (1992). Self-efficacy theory: Implications for social facilitations and social loaf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5), 774-786.
- Super, D. E. (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Super, D. E. (1974). A developmental approach to vocational guidanc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3*, 1-13.
- Young, R. A., Valach, L., Dillabough, J., Dover, C., & Matthes, G. (1994). Career research from an action perspective: The self-confrontation procedur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2), 185-196.

- 논문접수일: 2012년 11월 1일
- 심사시작일: 2012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1일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Hyun Mi Park

(Dept. of Family Counseling & 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Welfare and Counseling,
Sangmyung University)

Seok Jin Chang

(Dept. of Child & Adolescent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of Welfare and Counseling,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ow family support affects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to demonstr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the two variables.

Methods: The researchers collected information from 969 adolescents in Seoul and Incheon, and they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family support,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Results:** The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produced a good fit for the data.

Family support had an indirect but important impact on the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Conclusion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family support plays a critical role in increasing adolescents' self-efficacy, and they suggest that as adolescents' self-efficacy increases, their attitudes toward careers matur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family support,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